

2015.06.13. 서울시 공무원시험
국어 해설 신홍명 교수님

1. 정답 ④

주책 : 기원적으로 한자어 '주착(主着)'에서 온 말이지만,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인 '주책'을 표준어로 삼는다.

두루뭉술하다 : '두루뭉술하다'와 '두리뭉실하다'는 복수표준어이다.

허드레 :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하고 허름하여 함부로 쓸 수 있는 물건을 일컬어, '허드레'라 표현한다.

오답 해설 :

① 덩굴/넙쿨 : 표준어 규정 제5절 제26항에 보면 '덩굴'은 '넙쿨'과 함께 복수 표준어이다.

눈두덩이 : 표준어 '눈두덩'에 이어 2014년에 '눈두덩이'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놀잇감 : 표준어 '장난감'에 이어 2014년에 '놀잇감'도 복수표준어로 인정되었다. '놀이감'은 잘못된 표현이다.

② 웃어른 : 위아래의 대립이 없을 때는 '웃-'을 쓴다는 표준어 규정에 따라서 '윗어른'이 아닌 '웃어른'이 옳은 표기이다.

호루라기 : 과거 1988년 이전의 한글맞춤법으로는 '호루루기'가 옳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 올바른 표기는 '호루라기'가 옳다. 언어현실을 감안해 표준어로 정한 경우이다.

딴지 : 표준어 '딴죽'에 이어 2014년에 '딴지'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③ 계면쩍다 : '검연쩍다'와 같이 '몹시 미안하여 낮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다.'는 뜻의 말이다. [쩍다]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적다'로 적는다. [쩍다]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적다'의 뜻이 유지되고 있는 합성어일 때는 '-적다'로 적으나, '적다'의 뜻이 없는 경우에는 '-쩍다'로 적는다.

지루하다 :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같은 상태가 오래 계속되어 따분하고 싫증이 남'을 일컫는 말을 '지리하다'가 아니라 '지루하다'이다.

빼지다 : 표준어 '빼치다'에 이어 2014년에 '빼지다'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표준어로 추가된 13개 단어 (2014년 12월 15일 발표)

기존 표준어	추가 표준어	기존 표준어	추가 표준어
구안괘사	구안와사	장난감	놀잇감
굽실	굽신	딴죽	딴지
눈두덩	눈두덩이	사그라지다	사그라들다
빼치다	빼지다	섬뜩	섬찔
작장초	초장초	속병	속앓이
개개다	개기다	허접스럽다	허접하다
꾀다	꼬시다		

2. 정답 ②

‘낮췄’은 형용사 ‘낮설다’의 어간 ‘낮설-’에 명사형 전성어미 ‘-ㄴ’을 사용한 것이다. 어미로는 품사를 바꾸거나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낮췄’은 여전히 품사로는 명사가 아닌 형용사이다.

오답 해설 :

- ①보기 : ‘-기’는 일부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동사 ‘보다’의 어간 ‘보-’에 접사 ‘-기’가 붙어 명사가 되었으므로 접사로 인해 품사가 변화하였다.
- ③낮추다 : ‘-추-’는 몇몇 동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거나, 몇몇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며 동사를 만들어 주는 접미사이다. 형용사 ‘낮다’의 어간 ‘낮-’에 ‘-추-’가 붙어 동사가 되었으므로 품사가 변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④꽃답다 : ‘-답-’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이다. 명사 ‘꽃’에 접사 ‘-답-’이 붙어 형용사가 되었으므로 품사가 변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정답 ②

- [쏟하고] :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쏟’이 [쏟]으로 발음되는 것은 ㉠의 대치(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 [소타고] : ‘ㅎ’앞이나 뒤에 ‘ㄱ, ㄷ, ㅂ, ㅈ’이 결합되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은 ㉡의 축약 현상에 해당한다.

4. 정답 ①

‘망정’은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하지만 ‘-ㄴ망정’은 어미로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

- ② ‘-ㄴ지라도’는 어미로서,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ㄴ’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으)시-’뒤에 붙어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구애받지 않는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인다. 어미는 붙여 쓰므로 ‘있을지라도’로 붙여 써야 옳다.
- ③ ‘대신(代身)’은 명사이다. 단어와 단어사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쁜 대신’으로 띄어 써야 옳다.
- ④ ‘지’는 ‘경과한 시간’의 의미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하고, ‘막연한 의문’의 의미일 때는 어미로서 붙여 써야 한다.

5. 정답 ②

국어 문법의 범위는 ‘음운-음절-형태소-단어-어절-구-문장-이야기’이다. 이 중에 ‘음운, 음절’의 특징을 ‘음운적 특징’이라하고 ‘형태소, 단어’를 ‘형태적 특징’, ‘구, 문장, 이야기’를 ‘통사적 특징’이라 한다.

동사와 형용사는 단어이므로 형태적 특징이라 한다.

오답 해설 :

- ①③④는 문장과 관련이 있는 문법 범주이므로 ‘통사적 형태’라 한다.

6. 정답 ④

- 소파 : ‘외래어 표기 용례의 표기원칙’에 따르면, 어말의 ‘-a[ə]’는 ‘아’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소파’가 옳다.
- 소시지 : 이 단어의 발음은 [so:siʒi]이다. 이를 표기하면 ‘소시지’가 옳다. ‘소세지’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 슈퍼마켓 : ‘super-’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슈퍼-’로 적는 것은, 발음을 기준으로 외래어를 표기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 보디로션 :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는 영국식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에 따라 ‘body’를 ‘바디’가 아닌 ‘보디’로 표현한다.
- 팸플릿 : 이 단어는 발음이 [pæmfliʃ]이다. 이에 따라 표기하면, ‘팸플릿’이 옳다.

오답 해설 :

- 싱크대 : ‘외래어 표기 용례의 표기원칙’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핑크대’가 아닌 ‘싱크대’가 옳은 표기이다.
- 리더십 : [ʃ]가 [i]모음 앞에 올 때에는 ‘시’로 적는다는 조항에 따라 ‘리더쉽’이 아닌 ‘리더십’으로 표기한다.

7. 정답 ③

‘머무르다’와 ‘머물다’는 본말과 본딴말의 관계로, 두 단어 모두 표준어이다.

오답 해설 :

- ① ‘열둘째’는 맨 앞에서부터 세어 모두 열두 개째가 됨을 이르는 말이고, ‘열두째’는 열두 번째가 되는 차례를 뜻하는 순서의 개념이다. 즉 ‘열둘째’는 1~11까지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고, ‘열두째’는 1~11을 제외한 12번째 차례를 의미한다.
- ② ‘떨어먹다’는 재산이나 돈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앴을 뜻하는 말이다. ‘떨어먹다’는 잘못 된 표현이다.
- ④ 접두사 ‘수-’다음에 ‘ㄱ, ㄷ, ㅂ’이 오면 ‘ㅋ, ㅌ, ㅍ’로 표기한다. 예로 ‘수평아리, 수탉, 수캐, 수강아지, 수태지, 수탕나귀, 수컷, 수키와, 수톨찌귀’ 9개이다. ‘암-’도 동일하다.

8. 정답 ①

상실(喪失) : 잃을 상, 잃을 실/놓을 실.

- 1. 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됨.
- 2.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

오답 해설 :

② 성장(成長)

- 1.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 2.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

성장(盛裝) : 잘 차려입음. 또는 그런 차림

③ 이상(異常)

- 1. 정상적인 상태와 다름.
- 2.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달리 별나거나 색다름.
- 3. 의심스럽거나 알 수 없는 데가 있음.

이상(異狀)

- 1. 평소와는 다른 상태.
- 2. 서로 다른 모양.

④ 해동(解凍)

얼었던 것이 녹아서 풀림. 또는 그렇게 하게 함.

해동(解冬) : <불교용어> 동안거(冬安居)의 끝. 선원에서는 정월 보름날에 끝난다.

9. 정답 ②

<보기>는 오래된 길 그리고 그 길 양쪽의 집, 점포들의 모습과 상태를 정적 방식인 ‘묘사’를 통해 정경을 표현하고 있다.

②는 줄기에 붙어 있는 잎의 상태와 모양을 묘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 ① 서사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행동을 기술하는 표현하는 방법
- ③ 유추 :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
- ④ 인과 : 원인과 결과

10. 정답 ③ (미괄식 문단이므로 글쓴이의 주장이 마지막 문장에 구성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ㄴ) - 과학 기술의 혜택으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 전망하는 과학 기술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전망하기도 한다’라는 표현에서 이후 이어질 글의 내용이 과학기술의 부정적 관점을 언급하려고 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예상할 수 있다.

(ㄹ) - (ㄴ)에 이어 과학 기술의 낙관적 전망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적 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문장이다. ‘현상들’이라는 표현에서 구체적 사례를 2가지 이상 제시할 것임을 알 수 있다.

(ㄱ) - 과학 기술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와 같은 자연환경의 파괴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ㄷ) -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라는 문장의 첫머리를 고려해 볼 때 (ㄱ)의 뒤에 와야 한다.

(ㄹ) - ‘이런 위기들’이라는 문장의 첫머리를 고려하면 앞 문장에서 위기적 상황이 2개 이상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자연환경 파괴와 핵전쟁의 위기의 상황 뒤에 이어져야 하므로 (ㄱ)과 (ㄷ)의 뒤에 이어져야 적절한 미괄식 문단 구성이 된다. 그러므로, (ㄴ)-(ㄹ)-(ㄱ)-(ㄷ)-(ㄹ)이 미괄식 문단의 적절한 배열이다.

11. 정답 ①

지문은 (1)자유 의 정의를 제시 (2)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3)자유 극대화가 실현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 (4)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한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인간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다. 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보면, 자유의 확대가 불러오는 부작용까지가 원인이 되며, 이 때문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하게 된다는 결과가 된다.

12. 정답 ④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은 일제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전라남도 소록도를 배경으로 한센병 환자들의 지도자와 그 원생들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오답 해설 :

①박태원의 ‘천변 풍경’ : 1930년대 어느 해 2월부터 다음 해 정월까지 청계천변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삽화적 구성으로 그리고 있다.

②염상섭의 ‘두 파산’ : 해방 직후 서울 황토현 부근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파산된 인간을 통해 혼란한 사회상을 풍자한다.

③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 연작소설로서 <엄마의 말뚝 1>은 시골에서 남편을 잃은 후 어린 남매만 데리고 서울로 상경한 어머니가 마침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13. 정답 ④

박목월의 ‘이별가’는 아우를 잃고 쓴 시이다.

㉠,㉡ - 바람은 ‘단절’의 의미로 이승과 저승의 소통을 방해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 - ‘동아뱃줄’은 이승에서의 인연을 뜻하는 말로 인연의 소멸을 의미한다.

㉣ - ‘하직을 말자’의 표현에서 이별을 거부하고 있다. 즉, 여기서 ‘바람’은 단절이 아닌 이별의 거부를 통한 ‘연결’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은 단절의 의미이고, ㉣은 연결의 의미이다.

14. 정답 ③

③은 이개의 시조로 단종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여성적 어조로 표현한 단시조이다.

오답 해설 :

① 이조년 : 봄밤에 대한 애상

② 우탁 : 늪을 막을 수 없음을 한탄

④ 정철(훈민가) :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강조

15. 정답 해설 :

보기에 제시된 훈민정음 글자 운용법은 ‘竝書法(병서법-나란히 쓰기)’이다. 병서법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와 같이 서로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각자 병서(各字兵書)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와 같이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합용 병서(合用兵書)가 있다.

오답 해설 :

①象形(상형)은 훈민정음 초성의 제자 원리의 하나로, 발음 기관을 본떠 제자의 기본자인 ‘ㄱ, ㄴ, ㄷ, ㄹ, ㅇ’ 다섯 글자를 만들었다.

②加劃(가획)은 상형된 기본자를 중심으로 소리가 강해지고 거세지는 정도에 따라 획을 더하여 가획자를 만들었다. ‘ㄱ, ㄷ, ㅌ, ㅊ, ㅍ, ㅊ, ㅍ, ㅊ’가 이에 속한다.

④連書(연서)는 이어쓰기라고도 하며 순음(唇音)인 ‘ㄴㅍㅂㅁ’아래에 ‘ㅇ’을 이어서 순경음 ‘ㄹ, ㄺ, ㄻ, ㄼ’을 만드는 법이다

16. 정답 ④

사전에서의 타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동음이의어이다. 특히 ‘타다02’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동사]

1.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

2.도로, 줄, 산, 나무, 바위 따위를 밟고 오르거나 그것을 따라 지나가다.

3.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하다.

‘야밤을 타다’는 ‘타다02-3번’의미로 ‘시간을 이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를 타다’는 ‘타다02-1번’으로 사용하여 다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이 ④이다.

오답 해설 :

① 탁다04 : 2. 복이나 재주, 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

② 타다06 : 악기의 줄을 튕기거나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다.

③ 타다07 : 3. 부끄럼이나 노여움 따위의 감정이나 간지럼 따위의 육체적 느낌을 쉽게 느끼다.

17. 정답 ②

보기의 글은 홍길동 씨가 가기 싫은 동창회를 억지로 나가려 하였지만 배탈로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친구들로부터 핑계를 댄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사자성어로 烏飛梨落(오비이락)이 어울린다.

烏飛梨落(오비이락)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

오답 해설 :

①錦上添花(금상첨화) :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苦盡甘來(고진감래) :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④一舉兩得(일거양득) :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18. 정답 해설 :

道聽塗說(도청도설)은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곧 그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뜻으로, ①거리에서 들은 것을 남에게 아는 체하며 말함 ②깊이 생각 않고 예사로 듣고 말함 ③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뜬소문의 의미이다.

오답 해설 :

②心心相印(심심상인) :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으로, 묵묵한 가운데 서로 마음이 통함.

③拈華微笑(염화미소) : ‘연꽃을 집어 들고 웃음을 띠다’란 뜻으로, 말로 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을 이르는 말.

④以心傳心(이심전심) :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의사가 전달됨.

19. 정답 ②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는 자기가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다는 것을 이르는 의미로서 한자성어로는 ‘結草報恩(결초보은)’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같은 의미로 ‘머리털을 베어 신발을 삼다, 꿀을 베어 신을 삼겠다’ 등이 있다

20. 정답 ④

‘대수로이’는 ‘중요하게 여길 만한 정도로’의 의미의 부사이다. 주로 ‘대수로이 여기지 않다, 그 사건은 대수로이 생각할 일도 아닌데 웬 법석이나.’와 같이 부정어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 자체에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